

학생 서비스 만족도 '6년 연속 1위'

전북대,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평가서... 밀착형 소통·전폭적 지원 등 주요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4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서'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1위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9번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전북대학교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4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서'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대학별로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와 12개 세부 평가 분야에서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수년째 학생들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기반은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당당히 선정되며 국내 Top10 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학생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 중심 대학을 실현시키고 있다. 계열별로 입학해 자신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106개 학과의 모집단위를 46개로 광역화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한다. 또 한 전학·전과 비율과 복수전공을 크게 확대해 학문간 경계 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맞춤형 학사 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지역의 대학들과도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학습 및 연구 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을 통해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운영체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JBU(인터내셔널 라운지)와 중앙도서관 중도라운지 등 학생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 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올해로 6년 연속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14일 법의학자 이호 교수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역과 함께 책임지는 도서관' 두 번째 강연으로 법의학자 이호 교수(전북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초청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북대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이 교수는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을 주제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 교수는 죽음과 관련한 법의학적 접근과 생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법의학자인 이호 교수는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알쓸인잡', '유류처 운 더블록' 등에 출연하며 법의학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강연은 전북대 재학생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5일부터 선착순 50명에 한해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dl.jnu.ac.kr)를 통해 사전 접수하고 있다. 사전 접수자에게는 셀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가 증정되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강연 참여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3D프린팅 등 콘텐츠 콘테스트 시상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5일 비전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3D 프린팅, 드론 영상 및 VR/AR 콘텐츠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3D프린팅에는 '해양 방파제 구조물'이라는 주제의 3D메타니어팀(지적토목학과 윤인영 외 5인)이, 드론영상에는 '한바탕전주, 세계를 비친다'라는 주제의 드론로봇(지적토목학과 한효인 외 3인)이, VR/AR에는 'VR 쇼핑몰'이라는 주제의 수훈이와 아이들팀(국제협력기술과/컴퓨터정보과 리자 외 1인)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중 수훈이와 아이들팀의 'VR 쇼핑몰'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쇼핑하고, 의류를 착용해 볼 수 있는 메타 쇼핑 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우병훈 총장은 "이번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융합한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그간 학과에서 학습을 통해 익혔던 실무지식들과 경험들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핵심역량까지 인식의 전환과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장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특성화고 맞춤형 교육 지원 최선"

서거석 교육감, 특성화고 교장 대상 공감 토크서... 취업률 제고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일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장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특성화고 교장 28명이 참석한 공감 토크는 전북교육 정책을 소통하고, 특성화고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AI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확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 등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취업처 발굴과 취업 현장실습 기간 연장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 조정 및 최저 모집인원 감축 △전북 온라인학교 수강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머리를 맞췄다.

강호황고교 염택선 교장은 "특성화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진로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특성화고를 소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또 남원용성고 이석진 교장은 "지역별 취업처(지역우수취업처)를 교육청 차원에서 발굴해 능력 있는 학생들의 취업 연계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 강화에 최적화된 교육기관"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GDR 면접캠프'

'면접왕 이형' 초청... 도내 대학생·취업준비 청년 300여명 참여

전북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는 5일 도내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왕 이형의 GDR 면접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와 미래수송기사업단, 에너지신산업사업단이 공동 주관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의 대학 재학생과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약 300명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1천여 명이 함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삼양그룹, 성일하이텍 등 전북 지역 주요 기업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면접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한 '면접왕 이형'은 엘라이브커뮤니티의 이준희 대표로, 대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출신이다. 또한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취업 및 커리어 개발 전문 유튜브 채널 '면접왕 이형'을 운영하며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교생 초청 '일일 캠퍼스 체험' 성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4일 전국 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대학생 체험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60여 명의 고교생들이 전북대를 찾아 하루 동안 대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전대학술회 회관에 모여 전북대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학생 홍보대사들의 대학 설명회

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어 전북대 진수원에서 이른바 '학식'을 함께한 이후 본격적인 대학 체험에 들어갔다.

캠퍼스 투어를 통해 전북대의 요소요소를 둘러본 고교생들은 단과 대학별로 저마다 신청한 대학 수업을 직접 듣고, 임시 멘토링과 동아리방 탐방 등을 통해 대학 생활의 전반을 살펴



특히 체험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전북대 총정의 직인이 담긴 수료증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문화,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

전주대, 지역 상징 마스코트 디자인 개발 공모전

전주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이용욱)은 5일 '지역 상징 마스코트 디자인 개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재해석하는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총 20팀이 참가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전주 대표 음식인 비빔밥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통성과 친근감을 동시에 전달하며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비빔이'를 비롯해 순창 명물 고추장을 형상화한 '장독대감', 전주 명소 5곳을 동물화한 '조이주 프렌즈'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용욱 단장은 시상식에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문화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얻었다"며 "마스코트 디자인을 통해 전주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했다"며 "조이주 프렌즈로 전주의 전통과 지역의 따뜻함을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6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산학협력 엑스포' 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사업 지역 컨소시엄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팀경영컨설팅과 산학협력

전주대학교 친환경자동차학과(학과장 강성수)는 지난 4일 (주)팀경영컨설팅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자동차과는 성인 재직자들이 친환경미래모빌리티 분야와 스마트팩토리 분야 전반에 걸친 4차 산업 특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연계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팀경영컨설팅 성장용 대표이사는 "전북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과 기업, 대학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공유협업형 지역고등평생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과정이 탄탄해질 것이라며 "전북 지역 성인 재직자들의 성공적인 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직원 해외연수 내실화 운영방안 마련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문성 갖춘 평가위원회 구성 등 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지적된 교직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연수 추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교직원 해외연수 내실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직원 해외연수 내실화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회 구성 △내실화 있는 연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연수 후 평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교육계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원단체,

대학교 국제교류원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평가서류는 평가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사전 검토하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평가위원회 운영 시에는 운영 부서의 연수 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을 추가해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수기획팀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직개편은 (가칭)전북국제교육원 설립 추진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 교육 이해 돕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교육 이해자료 10개국어로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 교육 이해자료를 10개국어로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2022년 8,228명(전체의 4.36%), 2023년 8,664명(4.71%), 2024년 9,010명(5.03%)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자료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 진학 정보와 자녀 교육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학교 누리집 및 학교 안내문

등 번역 기능을 활용한 교육정보 접근 방법도 안내했다.

학교 교육 이해자료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등 총 10개국어로 번역해 14개 교육지원청 및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도 탑재해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교육 이해자료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